

빈야드 운동과 신약 성경의 성령 이해에 관한 연구

이상규

1. 서론

한국교회는 세계의 어느 교회에서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시간에 급속적인 성장을 보임으로 세계 교회의 주목을 받았다. 이런 괄목할 만한 성장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으나 하나님의 역사와 한국 성도들의 끊임없는 기도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한다. 특히 부흥회를 통하여 많은 역사가 일어났으며 이로 인하여 교회는 급속적인 성장이 있었다. 1905년과 1907년의 부흥운동은 대표적인 예이다. 또한 해방과 민족동란의 어려운 시기에 한국교회는 민족의 안식처로서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더욱 성장의 박차를 가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또한 한국교회는 1960년대 이후 오순절 운동과 은사지향적 은사주의를 경험하였다. 이러한 경험들은 부정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한국교회를 성장시키는데 거대한 기여를 했던 것이 사실이다.¹⁾

그러나 이러한 급성장도 1970년 말을 지나면서 주춤하다가 1980년 말부터는 점차 정체기를 맞았고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감소추세에 있다. 이런 감소추세로 말미암아 한국교회에 비상이 걸렸고 교회 성장을 위하여 여러 가지 인위적인 방법을 모색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많은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했다.

이러한 때에 미국 L. A. 에나하임 빈야드 크리스찬 헬로우쉽 교회와 캐나다 토론토 에어포트 빈야드 교회의 괄목할 성장은 한국교회의 이목을 끌기에 적당한 것이었다. 이 두 빈야드 교회는 급속히 성장한 교회일 뿐 아니라 여러 가지 괴이한 현상들- 기절, 진동, 눈물, 짐승의 웃음소리-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또한 이 교회에서 나타나는 치유사역과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 특히 목회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이다. 한국교회가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그들의 급성장하는 모습이나 한국 교회 초기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에 대한 갈망 때문인지도 모른다. 하여간 한국교회는 미국과 캐나다에서 일어난 이러한 운동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고 많은 목회자와 평신도들이 이 세미나에 참석하고 또 빈야드 교회를 참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빈야드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현상들을 성령의 역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빈야드 운동이 차세대의 목회 전략으로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면 과연 빈야드 운동이 성경적 지지를 받고 있으며 또한 빈야드 교회에서 지향하고 있는 목회와 차세대 목회 전략으로 가능한 것인가? 혹자는 빈야드 운동에 대하여 침체된 한국교회를 치료하고 영적 재무장을 시키는 21세기에 불어오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성령의 역사라고 보기도 하고²⁾ 어떤 사람들은 존 웹버의 은사와 능력을 중심한 목회³⁾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이러한 이적과 기사를 가미한 목회를 갈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빈야드 교회의 집회나 세미나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은 회개와 영적 능력의 회복, 내적 치유를 경험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한국교회에서는 일종의 경계의 눈빛을 보이고 있기도 하지만 동시에 호기심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실정이다.

빈야드 운동은 그들의 이러한 현상들을 요나단 에드워즈 때의 영적 부흥, 18세기 영국 웨일즈 지방에서 일어난 영적 부흥의 연장으로 보고 있다. 또 자신들을 비판하는 자들을 향하여 이들도 그 시대에 비판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도구로 영적 부흥을 일으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연 빈야드 교회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현상들을 영적 부흥시에 일어났던 영적 현상과 동일한 선상에서 볼 수 있는가? 무엇보다 이러한 괴이한 현상을 성령의 능력으로 인정하고 아무런 비판없이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것인가?

빈야드 교회는 그들 집회에 나타나는 여러 현상들을 성령의 역사로 규정하고 또한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성령의 역사와 동일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빈야드 교회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성령의 역사이며 신약교회에 나타난 역사들과 동일선상에

1) 정병관, "일명 '웃음에배'라고도 불리는 빈야드 크리스찬 헬로우쉽 교회", 현대 종교, 253(1995. 7), 36.

2) 김승환, "'토론토 블레싱'으로 퍼지는 영적 메아리, 토론토 에어포트 빈야드 교회", 목회와 신학, 72(1995. 6), 120

3) 정병관, 37-39.

서 볼 수 있는가?

이러한 의문을 가지면서 논문을 준비하게 되었다. 특별히 본 논문에서 전체적으로 다 다룰 수 없기 때문에 빈야드 운동의 기원과 특성을 먼저 살펴보고 일반적인 평가를 다루게 될 것이다. 이 평가는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를 함께 가지게 되는데 여러 평가를 나름대로 정리하여 평가하고 무엇보다 빈야드 교회에서 일어나는 기이한 현상들이 자기들이 주장하는대로 성경적인 근거와 지지를 받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또한 그들이 사용하는 은사에 대해 헬라이어 원어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들이 인용한 성경 구절을 주석적으로 살펴보게 될 것이다.

II. 본 론

1. 빈야드 운동이란 무엇인가?

20세기 초에 시작된 '오순절 운동'(Pentecostal Movement)은 초대교회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에 일어났던 방언과 성령세례, 치유와 예언과 같은 이적들을 오늘날 우리들의 시대에도 동일하게 일으키기를 원했던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운동은 우리나라의 경우 여의도 순복음 교회의 조용기 목사를 통하여 활성화 되었다고 할 수 있다.

20세기 중반에는 '은사 운동'(Charismatic Movement)이 일어나게 되었다. 혹자는 이 운동이 오순절 운동 안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일명 '신오순절 운동'(Neo-Pentecostal Movement)이라고 부르기도 한다.⁴⁾ 이러한 운동은 예수님과 사도 시대에 있었던 치유, 이적, 귀신 축출, 예언과 같은 은사들을 오늘날에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재현하려고 하였던 것이다.⁵⁾

최갑중 교수는 오순절 운동과 은사 운동을 구별하면서 제 1물결이라 불리운 오순절 운동은 교단화되었지만 제 2물결이라 불리운 은사 운동은 교단화 되지 않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성공회, 루터교, 감리교, 장로교는 물론 카톨릭에까지 영향을 주

었다고 한다.⁶⁾

그러면 20세기말에 일어난 '빈야드 운동'(Vineyard Movement)은 무엇인가? 그 이름 자체만으로는 빈야드 운동의 성격을 파악하기 매우 힘든 것이 사실이다. 어떤 사람들은 미국 L. A. 에나하임 빈야드 교회 집회나 세미나 시간에 이루어지는 격식 없는 예배나 찬양과 치유 사역, 넘어짐, 방언 등을 연상할 것이다. 또 다른 사람들은 '토론토 축복'의 진원지가 된 캐나다의 토론토 에어포트 빈야드 교회의 예배나 세미나, 거룩한 웃음, 넘어짐, 기이한 짐승의 소리 등을 연상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국제 빈야드 교단을 이끌어가는 John Wimber 목사가 말하는 능력 전도, 능력 치유, 능력 묵회 등을 연상하기도 할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정당한 것들이지만 '빈야드 운동'의 단면은 대변하는 것이지 전체를 설명한다고 할 수는 없다.

'빈야드 운동'에 대하여 한 마디로 규정하기 힘들지만 대체적으로 풀러 신학교의 교회 성장학 교수 Peter Wagner 교수가 말한 표현이 적절할 듯 하다. Peter Wagner는 20세기에 들어와서 기독교 안에 세가지 성령운동 물결이 일어났다고 보고 '오순절 운동'을 제 1 물결로 '은사 운동'을 제 2 물결로, 그리고 '빈야드 운동'을 제 3의 물결이라고 규정하였다.⁷⁾ '제 3의 물결'이란 용어는 미래학자였던 엘빈 토플러에 의하여 창안되었으나 풀러 신학교의 Peter Wagner 교수가 은사 운동에 사용함으로써 기독교계에서는 새로운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다.

Peter Wagner 교수는 '빈야드 운동'이 그 뿌리는 오순절 운동과 은사 운동에 두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들과 생각을 달리 하고 있다고 말한다.⁸⁾ '빈야드 운동'은 오순절 운동이나 은사 운동처럼 예수님 시대나 초대교회 시대에 있었던 성령의 역사나 오늘날에도 일어날 수 있다고 믿고 있다는 면에서는 그들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그러나 '빈야드 운동'은 중생과 성령 세례를 구분하여 '선 중생, 후 성령세례'와 같은 제 2의 은사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을 뿐 아니라 전통적 교회가 믿는 중생과 성령세례를 동시적 사건으로 보고 있다.⁹⁾ 또한 방언을 인정하지는 하지만 성령 받은 필수적인 증거로 보지 않는다.¹⁰⁾ '빈야드 운동'은 은사 운동처럼 치유사역을 중

4) 최갑중, 「빈야드 운동, 그 성경적 조명」 (서울: 개혁주의신행협회, 1996), 14.

5) 김대관, 「John Wimber의 '능력 전도'에 나타난 치유 사역 비판에 대한 고찰」 (고려신학대학원, 1996), 4.

6) 최갑중, 「빈야드 운동, 그 성경적 조명」, 14.

7) *Ibid.*, 16.

8) John Wimber, 「능력 전도」, 이계범 역(서울: 도서출판 나단, 1993), 169.

9) *Ibid.*, 187-206.

10) *Ibid.*, 202-203.

요하게 여기면서도 치유사역을 교회의 중심적 사역으로 간주하지도 않고 있다.

이처럼 '빈야드 운동'에 대한 견해는 매우 다양하다. 무엇보다 국제 빈야드 교회 협의회에서 1994년 발표한 신학적 선언을 보면 대다수의 복음주의 교회들이 신봉하는 교리나 신앙고백과 별다른 차이점을 볼 수가 없을 정도이다.¹¹⁾ 실제로 John Wimber는 자신의 책에서 빈야드 교회를 복음주의 교회로 자처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¹²⁾

하지만 현실적으로 나타난 빈야드 운동의 실체는 '표적과 기사'를 통하여 사역함으로 기독교 세계에 새로운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운동이다.¹³⁾ 빈야드 운동의 신학적 입장이 복음주의자들의 주장과 흡사하다하더라도 그들이 사역을 통하여 보여주는 것을 볼 때 은사운동에 치우쳐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빈야드 운동'에 대하여 한 마디로 하기는 힘이 들지만 Peter Wagner 교수의 정의에 입각하여 볼 때 결국 '빈야드 운동'은 오순절 운동과 은사 운동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성령의 역사¹⁴⁾에 대한 '제 3의 물결'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교리의 면에서 복음주의 교회의 교리와 별로 다른 점이 없어 보이지만¹⁵⁾ 강조점에서 차이가 있고 또 실제로 보여지는 것이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것들이 많으며 주로 '표적과 기사'를 중시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되겠다.

2. 빈야드 운동의 기원과 특성

A. 빈야드 운동의 기원

빈야드 운동은 국제 빈야드교회 협의회에서 주창하는 운동을 가리키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빈야드 운동을 알기 위하여는 빈야드 교회를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빈야드 교회는 미국 에나하임 빈야드교회의 창설자인 John Wimber에서 시작이 되었기에 결국 우리가 빈야드 운동의 기원을 알기 위해서는 John Wimber에 대하여

11) 최갑중, 「빈야드 운동, 그 성경적 조명」 17-18.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45-67을 참고하라.)

12) John Wimber, 「능력 전도」, 180-185.

13) 이계범, "새 물결의 파고 '빈야드 운동' 어떤 것인가?" 「목회와 신학」 72 (1995. 6), 53.

14)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역사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음을 밝혀둔다.

15) 상세한 것은 최갑중 교수의 책 「빈야드 운동, 그 성경적 조명」 73-99를 참고하라.

살펴보는 것이 좋을 듯 하다.

1. John Wimber

John Wimber는 1934년 미국에서 불신자의 가정에서 출생하였다. 그는 청소년 때 음악 전문대학을 졸업하였고 1960년대 미국에서 인기를 끌었던 록 음악 그룹인 Righteous Brothers를 조직하여 운영하였다. 1962년말 Wimber는 자신의 결혼 생활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을 무렵 어떤 웨이커 교도가 인도하는 성경공부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회심을 체험하게 되었고 그후 이들 부부는 기독교 신앙에 심취하여 열렬한 헌신자가 되었다.¹⁶⁾

회심후 Wimber는 음악계를 떠나 공장에서 일하면서 성경공부를 인도하게 되었고 또 전도사역에 헌신하게 되었다. 1970년에 Wimber는 웨이커 교단 소속의 Yorba Rinda Friend Church의 교역자로 목회를 시작하였고 그 후에 경건을 강조하는 이주사 퍼시픽 성경 대학에서 신학을 정식으로 공부하게 되었다.¹⁷⁾

1974년부터 John Wimber는 Fuller 신학대학원에 가서 계속 공부를 하게 되었고 그 학교의 신약학 교수였던 G. E. Ladd에 영향을 받게 되었는데 하나님 나라 사상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러다가 풀러 신학대학원 내에 있는 세계 선교 대학원에서 풀러 복음 전도 및 교회 성장 연구소(Charles E. Fuller Institute of Evangelism and Church Growth) 설립에 관여하게 되었다. 이곳에서 교회 성장학 분야에 깊이 관여하게 되었고 또 그 학교 교회 성장학 교수였던 C. Peter Wagner, Donald A. McGarvran, Charles Kraft, Russel Spitzer의 강의와 제 3세계의 선교 보고를 통하여 오늘날에도 예수님과 사도시대의 성령의 역사와 초자연적인 기사들이 가능하다고 믿게 되었다. John Wimber는 "그곳에서 일어난 은사들(예컨대 치유의 은사)와 교회 성장과의 관계는 나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다.¹⁸⁾

1977년 아버이 날에 요르바 린다 갈보리 채플을 설립하여 자신이 배우고 깨달았던 것들을 목회에서 직접 실험을 하게 되었다. 목회자로서 첫번째 설교를 하게 되었고 그후 10개월간 누가복음 설교를 하면서 병든 사람을 불러내어 그들의 치유를 위

16) 존 웹버의 회심에 대하여는 존 화이트, 「능력 표적」 (서울: 도서출판 나단, 1991), 216 이하를 참고하라.

17) 존 웹버, 「능력 전도」, 15-19.

18) 존 웹버·케빈 스프링거 공저, 「능력 치유」, 이계범 역(서울: 도서출판 나단, 1995), 71.

해 기도하였으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계속해 치유에 관한 책들을 읽고 교인들을 훈련시키고 무장시키는 일들을 계속했다.

1981년 John Wimber는 풀러 신학교에서 교회 성장학을 가르칠 때 'MC510: 표적과 기사와 교회 성장'이라는 과목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기적의 성경적 기초, 사례 연구, 영적 은사, 현대의 치유자들 등을 강의하였다.¹⁹⁾ 이 강의를 통하여 많은 학생들이 강의를 듣게 되었고 또 직접 강의 시간에 실습을 통하여 가시적인 방법으로 능력을 행하기도 하였다. 목격자였던 Wagner 교수는 "많은 사람이 육체적으로 치유를 받았다. 많은 사람이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치유를 받았다"라고 말했다.²⁰⁾

이러한 일은 결국 풀러 신학교에서 쟁점을 불러 일으켰다. 결국 1985년 몇몇 신학교수의 부정적인 반응으로 강좌를 1년간 취소하였다. 12명의 교수가 "MC510"에 대한 문제를 위촉받아 8개월간 연구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결국 이 과목은 중지가 되었으나 그 후에 피터 와그너 교수와 찰스 크래프트가 담당하는 "MC550: 치유 사역과 세계 복음화"라는 비슷한 과목을 개설하였다.²¹⁾

John Wimber는 1977년부터 1983년까지 갈보리 교단에 속해 있다가 갈보리 교단을 탈퇴하게 되었는데 아마도 그가 지나치게 신비주의적이고 은사주의적으로 보였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 후 John Wimber는 Keen Gulliksen이 주도했던 히피족 회심 단체인 '빈야드즈(Vineyards)'라 불린 여섯교회의 연합체에 가입하였다. 가입후 그는 Kenn Gulliksen으로부터 빈야드 교회의 운영권과 지도권을 이어 받게 되었다.²²⁾

John Wimber는 에나하임 빈야드 교회를 설립하였고 1985년 교회 연합체를 조직하였으며 일곱 지방회로 나누어 사역하고 있는데 John Wimber와 부목사들에 의하여 진행이 되고 있다. Wimber가 시무하는 에나하임 빈야드 교회는 1977년 50명이었던 교인들이 1996년 현재 약 6,000명이 회집하는 교회로 성장하였으며 국제 빈야드 교회의 모교회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전역에 약 500여개의 교회와 50,000여명의 교인을 가지고 있다. 또한 빈야드 운동은 풀러 신학교의 C. Peter Wagner, Charles Kraft, John White 등의 관여로 신학화되었으며 1990년까지는 논

19) *Ibid.*, 55.

20) *Ibid.*

21) 피터 와그너, 「제 3의 바람」, 정운교 역(서울: (주)임마누엘, 1991), 63-64.

22) 이광희, 「실천신학적 입장에서 본 빈야드 운동」, 「빈야드 운동, 무엇이 문제인가?」(서울: 한국 개혁주의 신학연구소, 1996), 83.

쟁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 이후에는 목회에 적용하는 단계에 들어가게 되었다.

한국에서는 빈야드 운동에 대한 선포는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많은 목회자들이 이미 빈야드 운동에서 개최하는 세미나에 참석하였고 현재에도 많은 목회자들이 참석하고 있다. 또한 세미나에 참석했던 많은 목회자들이 목회에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²³⁾

2. John Arnott

John Arnott는 캐나다의 토론토 국제공항 근처의 에어포트 빈야드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이다. John Arnott는 John Wimber와 함께 국제 빈야드교회 협의회에 소속해 있었으나 1994년 일명 '토론토 축복'(Toronto Blessing)을 기점으로 John Wimber와 노선을 달리하게 되었다. 그러나 John Arnott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도 필요할 줄 안다.

John Arnott는 캐나다 온타리오에 있는 온타리오 성경 대학의 졸업생으로 1986년 John Wimber의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었고 거기에서 빈야드 운동을 처음 접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듬해 John Arnott는 빈야드 교단에 정식으로 가입하게 되었다. John Arnott는 1992년 베니 힌 목사의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그 때 그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헌신하기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는 이것을 보면서 "그렇다. 우리는 강대한 주님을 모시고 있다. 그는 토론토를 복음으로 움직이실 수 있다. 그는 권세와 능력으로 그것을 하실 수 있다"²⁴⁾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John Arnott는 자신이 목회하는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Randy Clark 목사를 초청하여 집회를 가졌다. 이 때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권능으로 압도되어 소위 성령의 안식으로 불리는 '뒤로 넘어짐, 거룩한 웃음, 몸의 전율'을 느끼게 되었고 또 방언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으며 짐승의 울부짖음과 같은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 집회에서 일어난 이런 일들을 흔히 '토론토 축복'이라 부르게 되었다. 그 후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다녀갔고 John Arnott는 이 축복을 전세계에 전하기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²⁵⁾

23) 오성환, 「빈야드 운동의 개관적 고찰」(서울: 총회유사종교연구위원회, 1996), 1.

24) 기 웨브로, 「불을 잡아라」, 김승환·신중현 공역(서울: 도서출판 세이름, 1996), 40.

25) 예영수, "이 시대의 영적 현상, '토론토 축복'을 어떻게 볼 것인가?", 「목회와 신학」 72(1995).

그러나 이러한 일들에 대하여 빈야드 교단내에 찬반의 의견으로 나뉘게 되었다. 즉 이러한 현상이 성경적으로 뒷받침이 되며 성령의 역사라고 주장하는 John Arnott와 이것을 회의적으로 보고 금하는 Wimber 사이에 대립이 생긴 것이다. 이러한 결과 결국 Arnott와 Wimber는 결별을 하게 되었고 빈야드 교단은 나뉘게 되었으며 John Arnott는 독자적인 노선을 걷게 되었다.²⁶⁾

B. 빈야드 운동의 특성

빈야드 운동은 시작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으나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고 또한 많은 목회자들이 빈야드 교회에서 주최하는 세미나에 참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목회자들과 평신도들이 이 세미나에 참석하고 있다. 이렇게 빈야드 운동이 빠른 시간내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자.

1.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

빈야드 운동이라고 하면 무엇보다 먼저 생각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고 강조한다. 현대 교회가 무기력하고 침체에 빠진 것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체험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전통적 예배 형식에는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없다. 설교와 부르짖는 기도로 일관되어진 전통적 패러다임에서 탈피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훈련을 한다.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과 공간을 갖는 것이다. 그런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린 사람 중 상당수가 하나님의 임재라고 생각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특별히 그들은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고 있다. John Wimber나 John Arnott는 예수님의 시대나 초대교회 시대에 일어났던 강한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고 있으며 또 그들의 집회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물론 이러한 현상이 모두 성령의 임재와 역사인지 아닌지 하는 문제는 차후의 문제이다. 하여간 빈야드 운동에서 강조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임재와 역사이다. 그들의 집회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예언, 방언, 치유, 심지어는 거룩한 웃음이라고 불리는 것들, 떨림, 짐승의 울부짖음과 같은 소리 등을 바로 성령의 임재와 역사로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결국 정통주의 신학에서 성령에 대한 강조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일

어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정통교회에서 성령에 대한 강조가 없이 무미건조한 교리에 치중하게 되었고 그런 결과로 많은 사람들은 어떤 영적인 것에 갈급하게 되었다. 이러한 때에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오순절 운동과 은사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고 또 빈야드 운동과 같은 것들이 일어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비록 이러한 운동에서 주장하는 성령론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함으로 20세기 교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는 평가도 있다.²⁷⁾

2. 적극적인 선교운동

빈야드 운동은 침체된 교회에 성장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1940년대부터 미국의 교회들이 감소추세에 있고 또한 한국의 교회들도 1980년 후반부터 정체가 일어났고 점차 감소하는 추세가 되었다. 이러한 감소의 원인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포기하고 사회에 대한 지나친 관심으로 말미암은 것으로 본다. 즉 신학의 자유주의에 대하여 무방비의 결과로 본다. 즉 교회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의 관계나 사회문제에 지나친 관심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것에는 관심을 덜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것과는 구별되게 빈야드 운동은 그들이 가진 교리에서도 있듯이 죄와 사탄의 지배 아래 있는 인간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겠다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특별히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그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3. 현대 문화의 적극적 수용

빈야드 교회의 공식 신조에 보면 "우리는 현대 문화 수용을 존중한다. 우리는 편안한 분위기를 개발하고 우리 시대의 문화가 적극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방식을 따라 말하고 행동하고 웃음하기를 원한다. 예를 들어 우리는 대중적인 스타일의 예배 음악을 통하여 이 가치를 반영한다"²⁸⁾고 밝히고 있다.

이들의 이러한 의지는 그들의 예배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그들은 현대교회의 무기력과 침체의 원인을 문화를 수용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문화적인 것을 수용하고 있다. 그들의 예배는 담임목사가 예배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6), 65-74.

26) 더 자세한 것은 최갑중 교수의 「빈야드 운동, 그 성경적 조명」 26-45를 참고하라.

27) 최갑중, 「빈야드 운동, 그 성경적 조명」, 70.

28) Ibid, 60.

받은 예배 인도자에 의해 시작된다. 이들은 중앙에 있는 기타, 키보드 등의 악기와 함께 찬양팀에 의해 예배가 시작된다. 또한 설교자도 정장을 하고 단에 서는 것이 아니라 간편한 복장으로 단에 서서 설교를 한다. 그의 설교도 결코 웅변조나 강요조가 아닌 조용히 이야기하듯이 진행된다. 그리고 사역자들을 중심으로 기도가 진행된다. 그리고 찬양과 함께 계속되는 것이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는 축도나 주기도문도 없다. 이러한 빈야드 교회의 예배 의식은 기존의 교회가 가진 전통적인 예배와 의식, 스타일에서 벗어나 새로운 스타일의 예배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4. 평신도 사역의 활성화

전통적인 교회의 경우 평신도의 참여보다는 목회자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게 된다. 그러나 빈야드 운동의 경우는 목회자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한다. 그리고 이들을 훈련하여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특징이 있다. 모든 성도들이 찬양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프로그램 인도자, 상담자, 평신도 기도 사역자 등으로 훈련하여 참여하고 있다.

또한 빈야드 교회에서 개최하는 세미나의 경우 이러한 현상을 더욱 뚜렷하게 볼 수 있다. 세미나의 많은 부분은 목사나 목회자가 아닌 평신도가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것에서 빈야드 운동이 목회자 중심의 목회나 사역에서 평신도를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케 함을 알 수 있다.

3. 빈야드 운동에 대한 일반적 평가

빈야드 운동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대립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국교회의 목회자들중 많은 사람들이 빈야드 교회를 방문하여 직접 보고 오지만 사람들마다 나름대로 신학적 배경으로 인하여 다른 평가를 내리고 있다.

나름대로 정리하고 한국교회에 필요한 부분들을 살피고 또 신학적으로 잘못된 부분들을 평가해 보려고 한다.

A. 긍정적 평가

1. 예배에 대한 새로운 이해

1) 형식적 틀에서 벗어나는 예배 형태

빈야드 운동은 예배에 대한 전통교회의 패러다임을 깨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전통적인 예배의 패러다임은 반복으로 말미암아 지루함을 자아내는 것이다 라는 비판에서 출발하여 나름대로 새로운 예배의 형식을 찾으려고 한다. 빈야드 운동의 예배는 전통적 교회의 예배에 비하여 매우 자유롭고 또 열정적이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경배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차 있고 또 그런 열망들을 채워주려는 것을 볼 수 있다.

빈야드 운동의 예배는 아주 자유롭다. 물론 차츰 나름대로의 예배의 틀로 갖추어져 가고 있지만 획일적인 예배의 순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면이 많은 사람들에게 효과적인 전달이 되는 듯하다.

특히 형식화 되어버린 예배의 경우 아무런 감격없이 틀안에서 짜여진 순서에 따라 진행되기 쉽고 회중은 그냥 기계처럼 움직일 경우가 많다. 또한 빈틈없이 진행된다. 그러나 빈야드 교회의 예배의 경우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며 또 회중으로 하여금 예배에 함께 참여하게 한다.

2) 회중의 예배에의 적극적 참여

전통적인 교회의 예배는 점차 회중은 예배를 참관자라는 인식을 받게 된다. 형식화된 예배순서에 따라 움직이는 회중에게는 예배에 대한 참여나 감격을 잃어버리기 쉽다. 단지 예배를 집행하는 목사를 바라본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 또한 예배에 회중이 참여하여 찬양하고 경배하는 시간이 많지가 않다. 그러므로 회중은 점차 예배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못한다는 인상을 준다.

그러나 빈야드 교회의 경우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회중이 예배에 참여하게 된다. 함께 찬양하고 경배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다. 찬양대의 찬양과 회중의 몇 번의 찬양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중 전체가 단순하지만 깊은 뜻을 가진 가사로 찬양할 기회를 갖는 것이다.

3)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경험의 시간

전통적 교회의 경우 이런 부분이 매우 약하다고 생각된다. 정해진 시간과 일정한 패턴을 따라 드러지는 예배이기에 시간의 제약을 받게 되고 자유함과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기 힘들다. 또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확신이 없이 무미건조한 시간을 보

내게 될 경우가 많다. 감격적인 예배를 잃어가고 있는 형편이다.

이런 평가에 대하여 빈야드 교회의 경우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다. 또한 그들은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간다.²⁹⁾ 예배의 본질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강조하는 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이 되는 것이다.

2. 사람에 대한 이해

1) 회중이 참여하는 예배

많은 전통교회의 경우 수없이 많이 드러지는 예배 가운데서 회중은 참여하지 못하고 물러나 있는 느낌을 받게 된다. 목사의 집례로 시작되는 예배, 찬양대만의 찬양, 몇 번의 찬양으로 회중은 언제나 예배에서 떨어져 있는 듯한 인상을 준다. 중세 시대의 생명력없이 사제를 중심으로 드러지는 예배로 전락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한다.

그러나 빈야드 예배의 경우 회중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한다. 예배의 인도나 찬양의 문제, 기도의 문제에 대하여 회중의 적극적 참여가 있다. 물론 예배학적 평가도 필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감격이나 기쁨 없이 드러지는 예배가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이다. 예배 속에서 회중의 적극적인 참여를 제공하는 통찰을 주고 있는 것이다.³⁰⁾

2) 사역에서의 평신도의 참여

기존 교회의 경우 평신도의 사역 참여는 그렇게 많지 않다. 물론 이런 인식이 점차 바뀌어 평신도의 사역 참여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아직도 평신도와 성직자에 대한 뚜렷한 구별로 인하여 평신도의 사역 참여는 제한이 되어 있는 실정이다. 만인제사장이란 교리를 가지고 있지만 평신도와 성직자의 지나친 구분이 있음을 보게 된다.

이러한 일에 대하여 빈야드 교회는 평신도의 참여가 열려 있다. 여러 가지 사역에서 목회자만이 아니라 평신도가 동참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여러 목회자들의 경험에 의하면 빈야드 교회의 세미나의 많은 부분을 평신도들이 담당하고 있음을 보

29) 김현석, "현장에서 본 빈야드 운동", 「목회와 신학」 72(1995. 6), 110.

30) 이광희, "실천신학적 입장에서 본 빈야드 운동", 「빈야드운동 무엇이 문제인가?」(서울: 한국 개혁주의 신학연구소, 1996), 104-105.

게 된다. 또한 예배에 있어서도 인도를 평신도들이 하고 찬양도 평신도들이 훈련을 받고 인도하고 있다.

3) 회중 각 개인에 대한 관심

오늘날 교회가 대형화되면서 점차 성도 개인에 대한 관심이 많이 사라지고 있다. 심지어는 교회를 하나의 기업체로 보고 경영이란 말을 자주 사용함을 보게 된다. 결국 이러한 일로 회중 개인에 대한 관심은 점차 사라지는 것이다. 일방적인 설교로 모든 할 일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빈야드 운동의 경우 각 개인에 대한 많은 관심들을 가진다. 회중의 마음속 깊이 있는 고통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 것이다. 그들의 고통을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주님 앞에 내려 놓고 위로와 치유를 기다리게 한다는 것이다.

또한 회중의 영적인 성장에 대한 관심을 갖는다. 회중의 은사를 개발하고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재촉하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전통 교회가 교인 한사람 한사람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어야 할 것이다. 단지 여러 사람 중의 한 사람이 아니라 그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더욱 필요한 것이다.

3. 전도와 선교에 대한 이해

빈야드 운동에서 중심되는 표어는 '능력 전도'(Power Evangelism)이다. 이것은 존 워버의 책의 제목이기도 하다. 이 용어의 이해를 위해서는 먼저 '능력 대결'에 대하여 알아야 한다. 존 워버는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의 세력이 서로 충돌하는 것을 '능력 대결'이라고 불렀다.³¹⁾

존 워버는 그리스도인들이 전도 현장에서 당면하는 현실을 '능력 대결'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능력 대결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냄으로 전도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것을 '능력 전도'라고 불렀던 것이다.

'능력 전도'란 합리적인 동시에 합리성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방법이다. 즉 복음을 선포함과 동시에 표적과 기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는 또한 성령님께서 영감을 주시는 가운데서 그 능력을 덧입어 하나님의 임재를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드러내어 보여 주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결국 예수와 더불어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전도와 선교의 현장에서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이적과 기사를 통해 직접 나타내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근래에 일각의 교회에서 너무 인위적이고 사람의 지혜대로 하는 프로그램 전도에 치중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 사람의 말이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도하고 선교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커다란 도전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우리는 이런 능력을 구해야 한다. 또한 이런 면에서 전도와 선교가 얼마나 절대적이며 영적인 전쟁임을 알게 되는 것이다.

1) 성령 중심의 사역

빈야드 교회의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 특히 한국 교회의 목회자들의 평가에 의하면 이들의 사역은 성령 중심의 사역으로 인정하고 있다.³²⁾ 빈야드 교회에서 나타나는 요소들에 대하여 성령 중심으로 보고 있다. 특히 그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한국교회에서는 너무나 많은 경우 목회자 중심의 사역을 하고 있다고 동시에 지적하고 있다. 결국 목회자가 계획하고 진행하고 주도하게 되면 결국 주도권은 인간에게 있는 것인지 성령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2)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경험

여러 목회자들의 경험에 의하면 빈야드 교회의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찬양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에 대하여 확실한 경험을 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경험은 그들에게 큰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게 하였다고 한다. 특별히 한국교회의 찬양과 예배에 대하여 부정적인 면을 지적하면서 찬양을 단지 예배의 한 부분으로 서가 아니라 예배의 본질로서 하나님이 직접 거하시고 임재하시는 영적인 거처라고 확신하고 있다.

B. 부정적 평가

1. 기사와 이적에 대한 치중

존 맥아더는 빈야드 운동이 지나치게 기사와 이적에 모든 가치를 두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제 3의 물결을 신봉하는 자들은 놀라운 기사와 이적이야말로 자기

들의 운동이 참임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믿는다. 기적적인 현상이 바로 제 3의 물결의 핵심적인 신앙이다. 제 3의 물결을 믿는 사람들은 기적, 환상, 방언, 예언 그리고 신유 등이 복음에 필수적인 요소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이런 것들이 없는 기독교는 서구인들을 무기력하고 악하게 타락시킨 물질주의적 사고 방식에서 나온 것이다”³³⁾ 라고 하였다.

또한 맥아더는 제 3의 물결의 방법론이 복음의 권능을 왜곡하고 있으며 구원의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비록 그들이 어떻게 온전히 복음화할 것인가를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원론과 복음의 정확한 메시지는 그들에게 중요한 관심사가 아니라 단지 기사와 이적의 소란 속에서 복음의 내용은 그들의 관심 밖의 것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도전략은 복음의 메시지를 훼손시키고 있으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에 중점을 두지 않고 기사와 이적에 치중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³⁴⁾

맥아더는 빈야드 운동이 복음전파에 있어서도 단순한 복음의 전달보다는 복음 이외의 것을 추가하여 반드시 기적을 전파해야 완전한 신앙에 이른다고 가르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한다. “제 3의 물결은 기사와 이적을 핵심적인 전도 방법으로 삼는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불신자가 완전한 신앙의 단계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적을 체험해야 한다고까지 말한다. 그들은 단지 복음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것만으로는 그리스도의 세계에 도달할 수 없다고 믿는다. 그들은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적을 보지않고는 믿을 수 없으며 기적을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잘못 믿는 것이므로 영적으로 온전하게 성장할 수 없다”³⁵⁾고 한다.

2. 사도적 사역에 대한 모델화와 모방화

빈야드 운동이 표방하는 것은 바로 신약성경에 나타난 이적을 현재에도 그대로 재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행한 이적들을 이 시대에도 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러한 이적들을 지나치게 모델화하고 모방화하려고 하는 데 있는 것이다.

우리가 빈야드 교회의 공식적인 신조나 신앙 고백문, 선교 목적 등을 읽어 보면

33) John F. MacArthur, 「은사(I): 예언자인가, 광신자인가, 아니면 이단인가?」, 생명의 샘 편집위원(서울: 생명의 샘, 1994), 205.

34) *Ibid.*, 212-213.

35) *Ibid.*, 205.

32) 김현석, 110.

이것을 알 수 있다. 그들의 모토는 '예수님과 사도들의 사역을 이 시대에도 재현하
자라는 것이다. 예수님의 사역이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운동' 즉 '사탄
의 세력에 매여 있는 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
고 그들을 사로 잡고 있는 귀신들을 쫓아내어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는 운동'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³⁶⁾

즉 빈야드 운동에서는 예수님의 사역과 제자들의 사역을 자신들의 사역의 모델
로 삼고 있다. 그뿐 아니라 그러한 사역을 그대로 모방하기 위해 훈련을 받고 있는
것이다. 즉 훈련을 통하여 그러한 사역을 가능케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빈야드
교회 사역자 훈련 세미나의 프로그램을 소개하고자 한다.³⁷⁾ 이 훈련 프로그램의 모
토는 '예수님처럼 사역하는 것을 배우자'이다.

8 : 15	-- 9 : 00	제 1 강의: 하나님의 나라와 치유
9 : 00	-- 9 : 15	성령 세례
9 : 15	-- 9 : 30	소그룹 사역
9 : 30	-- 10 : 00	제 2 강의: 예수님의 치유 사역
10 : 00	-- 10 : 15	치유의 모델 소개
10 : 15	-- 10 : 30	모델 실습/소그룹 사역
10 : 30	-- 10 : 45	휴식
10 : 45	-- 11 : 30	제 3 강의: 예수 사역 훈련
11 : 30	-- 11 : 45	계시 은사(지식과 지혜의 말씀과 영들의 분별) 청원/대그룹 모델화
11 : 45	-- 12 : 00	소그룹 성령 은사(능력전도)사역
12 : 00	-- 12 : 15	사역 요령/대중 사역 팀 요령

하나님 나라 전파가 예수님의 중심 사역이었기에 빈야드 운동도 자연스럽게 하
나님 나라 운동을 제 1의 목표로 하고 있고 또 그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훈련을 하
고 있는 것이다.

빈야드 운동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에 성령을 받아 예수님처럼 능력있는

설교와 가르침과 표적과 기사를 통해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나님 나라 운동을 계속
하였던 것처럼 오늘날의 사역자들도 성령을 받아 예수님과 사도들과 동일한 사역을
할 수 있다고 믿고 또한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빈야드 운동은 그들의 집회와 세미나에서 일어나는 기이한 일들과 치유
를 예수님과 사도들의 사역과 동일하게 받아 들이고 또 하나님 나라 운동을 재현하
는 증거로 받아 들이고 있는 것이다. 존 워버가 쓴 「능력 전도」와 「능력 치유」
에서 이러한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그들의 사역은 매우 매력적으로 보이며 생동력있게 우리에게 다가온다.
그러나 예수님과 사도들이 행한 이적을 우리가 행해야 하는 모델로 삼고 있다는 점
과 또 그대로 행하려고 하는 점에는 분명히 적지 않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물론 예
수님과 사도 시대의 이적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또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나친 모델화와 모방화가 문제이다. 예수님은 우리가 모방할 수 없는 독
특한 인격과 신분을 가지신 분임을 기억해야 한다. 예수님의 사역과 그분의 신분은
결코 분리된 것이 아니다. 그분의 독특한 신분에서 그분의 독특한 사역이 나오는 것
이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적 사건인 것이다.

또한 오순절 운동과 은사 운동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지나치게 특정 은사에 대하
여 모델화 하고 있으며 그 은사를 발휘하기 위하여 은사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것
이다. 인간적인 훈련으로 이러한 은사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결국 성령님의 사역
이 아니라 인간의 자기 훈련에 불과한 것이다. 은사의 모방과 은사 훈련은 결국 인
간의 노력과 자기 훈련을 통하여 조정될 수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다. 바울서신을
통해서 볼 때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결코 인간의 자기 훈련이나 노력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고전12:4절이하, 롬12:3절 이하)

존 워버의 책 「능력 치유」에서 그는 오늘날에도 예수님 시대와 동일한 치유사
역을 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빈야드 운동의 치유 모델과 5단계 치유 단계를 제시
하고 있다.³⁸⁾ 이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 제 1 단계 : 면담, 제 2 단계 : 진단, 제 3
단계 : 기도의 선택, 제 4 단계 : 기도의 시행, 제 5 단계 : 기도가 끝난 후의 지시
사항으로 되어 있다.

특정한 은사에 대한 지나친 모델화나 모방화는 교회 역사에서 보여주듯이 '교회
안의 교회'를 만들 우려가 있으며 주의 몸된 교회의 통일성을 오히려 훼손하게 된다

36) 최갑중, 「빈야드 운동, 그 성경적 조명」, 73-74.

37) Ibid, 75.

38) 존 워버·케빈 스프링거, 「능력 치유」, 283-385.

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또한 성경의 계시사적인 측면을 간과한 채 단순히 그 가운데 기록된 내용의 현재적 반복만을 강조하는 것은 성경의 의미를 드러내기보다는 그 의미를 단순화 내지 미신화할 수 있는 요소를 얼마든지 가지고 있다.

3. 성경 말씀보다 체험 위주의 신앙

존 맥아더는 빈야드 운동이 성경보다는 체험 위주의 신앙을 우위에 두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한 신앙이 아니라 인간적 체험을 근거로 한 신앙을 강조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제 3의 물결의 가르침은 성경의 충족성을 단호히 거부한다. 즉 하나님께서 오늘 날에도 교회에 새로운 계시를 주신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상 성경이 완전하고 충분하다는 사실을 거부하는 것이다. 그러나 제 3의 물결의 지도자들은 이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³⁹⁾라고 하였다.

실제로 존 웹버는 그가 경험한 신비한 체험을 매우 강조하고 있고 심지어는 에드워즈의 성령체험과 동일시하고 있다. 그는 대각성 운동을 주도했던 에드워즈, 웨슬레, 윌필드 같은 사람들이 성령의 체험을 하고 난 후에 다른 종교 지도자들에게 비판의 표적이 되었다고 하면서 자신도 그러한 비판을 받고 있다고 주장한다.⁴⁰⁾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오덕교 교수는 “웹버의 신학의 기초는 웨이커 교회의 신령주의적 신학에 기초하고 있다”⁴¹⁾고 비판하였다. 웹버가 복음을 듣게 된 것은 웨이커 교도를 통해서이고 목사 안수를 받은 것도 웨이커 교회인 프렌즈 교단이었다. 웨이커 교회는 객관적인 신앙은 무시하고 오직 ‘내적인 빛’만이 신앙을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한다. (요 1: 9-18) 그러므로 이들은 신앙의 최종적인 권위는 객관적인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 사람의 심령에 말씀하시는 ‘내적인 빛’이라고 주장한다. 결국 이러한 신앙은 성경의 객관적 계시를 무시하고 환상이나 직관을 통해 새로운 계시를 받는다고 주장하는 주관적인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영향의 결과로 웹버도 성경의 객관적인 계시를 무시하고 개인의 체험을 우위에 두고 있는 것이다.

39) 존 맥아더, 217-218.

40) 존 웹버·케빈 스프링거, 「능력 치유」, 353.

41) 오덕교, “조나단 에드워즈 입장에서 본 빈야드 운동” 「빈야드 운동, 무엇이 문제인가?」 (서울: 한국개혁주의신학연구소, 1996), 50.

이러한 것과 함께 빈야드 운동은 실용적인 관심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이다. “제 3의 물결 지지자들은 한편으로는 자기들이 성경적이라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실용주의자들이라고 한다. 이 두가지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실용주의자는 무엇이 일어나는가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성경적인 사람은 오직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에 관심을 기울인다. 이 방법들은 근본적으로 상충된다. 그런데 제 3의 물결에서는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와 성경적인 양식이 상충되면 항상 그들의 실용주의를 택한다. 그러므로 체험이 그 운동의 실제적인 지침이나 신학적인 안전을 결정한다”⁴²⁾라고 맥아더는 비판하고 있다.

빈야드 운동에서 일어나는 영적 체험들의 대표적인 것은 몸의 진동과 떨림, 쓰러짐, 몸부림치거나 경련, 웃거나 흐느껴 우는 현상 등이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행위들은 그들의 실용적인 면을 강조하는 것이다. 능력의 부여주주의 모습이며 새로운 능력으로 충만해진 모습이라고 주장한다.⁴³⁾

웹버는 이러한 모든 현상에 대하여 성경적 근거를 제시한다. 넘어짐의 현상은 은혜 체험의 현상이라고 하면서 에스겔 1:28을 인용한다. 하지만 에스겔이 쓰러진 것은 성령이 임하셔서 넘어진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위엄 앞에 스스로가 엎드린 것이다. 칼빈은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에게 확증되었다는 것을 확신함으로 겸손하게 된 것”⁴⁴⁾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 꼬꾸라지는 현상의 예를 예수님을 잡으러 온 군사들(요18:6), 무덤을 지키던 파수꾼(마28:4), 귀신이 꼬꾸라지는 것(막9:20)등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들이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오덕교 교수는 “웹버의 주장에는 전혀 성경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⁴⁵⁾라고 하였다.

그들이 말하는 여러 가지 체험은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지 못하고 또 성경적 근거를 제시하더라도 성경 인용은 적절하지 못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이러한 것은 철저히 자기의 주관적 체험에서 온 자기 합리화인 것이다.

결국 빈야드 운동이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보다 주관적인 체험 위주의 신앙은 올바른 토대를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주관적인 체험을 절대화

42) 존 맥아더, 219.

43) 존 웹버·케빈 스프링거, 「능력 치유」, 355-363.

44) 존 칼빈, 「에스겔 성경주석(I)」 (서울: 성서교재간행사, 1992), 108.

45) 오덕교, 69.

할 때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개인의 주관적인 체험이 영적인 문제에 대한 최종적인 권위를 갖게 된다. 또한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데 유일한 기준과 강령이 아니라 기껏해야 개인의 체험을 입증하는 시너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가져 오는 것이다.

존 워버는 피터 와그너 교수의 설명을 수용하여 기적을 두 가지 범주로 나누었다. 첫째로 분류한 사회적 표적들(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표적)의 범주에 '가난한 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함,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함,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함, 은혜의 해를 선포함' 등을 포함시켰다. 둘째로 개인적 표적들(특수한 개인들에게 적용되는 표적)의 범주에는 '눈먼자를 보게 함, 병든 사람을 치유함, 앓은뱅이를 걷게 함, 문둥이를 깨끗하게 함, 귀머거리를 듣게 함' 등을 비롯한 치유 사역과 관련된 표적들 그리고 '방언, 축사, 부활' 등을 분류하고 있다.

존 워버는 기적들은 장차의 우주적 구속과 왕국의 완성에 대한 예시이며 약속이라고 하고 특별히 병자의 치유는 모든 고난의 종식을 입증한다고 설명한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특별히 사탄이 활동하는 네 개의 영역들에 대한 그의 통치를 보여주는 표적과 기사를 행하였다고 하는데 그 네가지 영역은 '귀신, 질병, 파피적 자연, 죽음'이라고 설명한다. 기적들의 두번째 범주에 대하여 피터 와그너 교수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예루살렘에 있는 신자들의 기도에 관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며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행4:30) 두 번째 범주에 속하는 표적들의 주된 기능은 구원받지 못한 자의 마음을 복음의 멍세지에 열리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권능에 매혹되게 하려는 것이다"⁴⁶⁾

4. 질병에 대한 극단적 이해

빈야드 운동은 질병에 대하여 극단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다. 즉 질병을 사탄의 가장 강력한 도구들 중의 하나로 보고 있는 것이다. 존 워버는 그의 책에서 "복음서에 있어서 태반의 문구들은 몇 가지 형태의 능력 대결을 기록하고 있으며 그중 9-20%는 치유에 관한 것이다. 질병의 원인은 육체적, 심리적 또는 정신적인 것일 수 있다. 그러나 원인과 관계없이 기독교인은 질병에 대한 영적인 능력을 가진다. 1

46) 존 워버, 「능력 전도」, 137.

세기의 기독교인들은 질병을 사탄의 활동, 귀신들의 무기, 악의 세계를 지배하는 방법으로 보았다. 예수께서 질병을 치유하실 때 그는 사탄의 왕국을 지배하는 것으로 보았다. 예수께서 질병을 치유하실 때 그는 사탄의 왕국을 퇴치하셨다. 악마가 한 것을 예수님께서서는 원상태로 돌려 놓으셨던 것이다"⁴⁷⁾라고 하였다.

누가복음 13장 10-17절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18년된 병자를 치료하신 장면을 볼 수 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여자여 내가 네 병에서 놓였다"라고 말씀하셨다. 16절에서 예수님은 '그녀를 사탄에게 매었다'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분명히 예수님이 이 질병이 사탄에게서 비롯된 것임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모든 질병을 사탄의 활동과 연관을 시킨다는 것은 너무 비약적인 논리이다. 물론 특정한 병의 경우 사탄의 활동과 연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질병을 사탄에 의한 것으로 단정하는 것은 극단으로 치닫는 것이다.

5. 종교적 은사주의

빈야드 운동이 소개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보였다. 목회와 신학에 소개된 글들을 보면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빈야드 운동을 국내에 소개하고 존 워버의 책을 많이 번역해 내 놓은 이재범 목사는 빈야드 운동이야말로 침체의 늪에서 빠져들어가는 한국교회 갱신의 '출애굽'이라고 극찬하였다.⁴⁸⁾

또한 한신대학교의 예영수 교수는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에어포트 빈야드 교회에서 일어난 '토론토 축복(Toronto Blessing)'을 어거스틴과 성 프란체스코, 존 웨슬레, 케드린 쿨만, 멜 태리와 같은 인물들이 경험한 교회사적 사건이므로 함부로 정죄해서는 안된다고 하였다.⁴⁹⁾

김영한 교수나 이한수 교수의 경우 너무 이적이거나 기사를 부정시키는 잘못을 비판하면서 이러한 것에 대하여 무조건적인 비판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였다. 특히 김영한 교수는 워필드나 패커가 기적을 무조건 비판한 것을 잘못이라고 강도있게 비판하면서 열매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⁵⁰⁾ 이한수 교수도 은사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개혁주의를 비판하면서 빈야드 운동은 "나름대로 성경적 토대를 가

47) Ibid, 83.

48) 이재범, "새 물결의 파고 '빈야드 운동' 어떤 것인가?", 「목회와 신학」 72(1995. 6), 64.

49) 예영수, "이 시대의 영적 현상, '토론토축복'을 어떻게 볼 것인가?", 「목회와 신학」, 65-74.

50) 김영한, "성령의 역사인가, 사탄의 미혹인가?", 「목회와 신학」, 75-87.

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⁵¹⁾고 하였다.

장신대학교의 현오한 교수는 은사주의자들의 오류를 지적하면서 치유만을 강조하는 것은 기복신앙에 불과하며 복음의 본질과도 다르다고 하였다. 초대교회의 경우 기적적인 은사와 그렇지 않은 은사를 명백히 구분하려고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성령의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⁵²⁾ 이러한 은사주의의 문제는 십자가를 외면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면서 십자가의 고난없이 영광만을 추구하는 은사는 종교적 은사주의에 빠질 위험이 빠질 위험이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⁵³⁾

워필드는 개혁주의 사상에 근거하여 사도들이 자유자재로 사용했던 것과 같은 은사는 이미 중단이 되었다고 하였다. 왜냐하면 그러한 은사들이 주어진 목적이 “교회 확장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도들의 권위를 확증해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⁵⁴⁾고 하였다. 또한 “성경에서 기적은 합당한 이유없이 여기저기 무분별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기적들은 계시 시기에 속하며 오직 하나님께서 친히 보내신 사자들을 통해서 자기의 은혜의 목적을 선포하시며 그분의 백성에게 말씀하고 계시 때만 나타난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계시 능력의 표적인 기적은 그 본체인 계시가 완성된 후에 계속되리라 기대할 수 없으며 실질상 계속되지도 않는다”⁵⁵⁾고 하였다.

존 워버의 신학은 사도행전의 은사들이 역사속에서 연속된다는 신학적 전제에 기초해 있다. 이러한 은사의 목적은 치유이며 치유를 통하여 모든 질병과 연합만이 아니라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릴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개혁주의적 은사론에 비추어 볼 때 존 워버의 치유신학은 성경에서 나온 것이라기 보다는 인간적 가르침에 근거하여 전개된 신학이며 종교적 은사주의를 발전시킨 인위적 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빈야드 운동이 ‘능력 대결, 능력 치유, 능력 전도’라는 기치 아래 균형을 상실한 채 한쪽으로 치우쳐 있음을 알 수 있다. 치유사역과 영적 현상에만 온통 관심을 갖는 빈야드 운동은 개혁주의 전통과는 거리가 멀다.

병과 가난을 죄의 값으로 보며 그리스도의 사역을 단지 치유로 제한하여 극단적으로 성경을 이해한 결과 치유사역의 결과만이 강조된 종교적 은사주의에 빠지게

51) 이한수, “오늘날의 신유에 대한 신학적인 진단”, 「목회와 신학」, 88-97.

52) 현오한, “오늘의 은사운동, 이 점을 주의하자”, 「목회와 신학」, 101.

53) *Ibid.*, 104-105.

54) 벤자민 워필드, 「기독교 기적론」, 이길상 역(서울: 나침반사, 1989), 30.

55) *Ibid.*, 34-35.

된 것이다. 이런 논리라면 질병을 가진 사람이나 치유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거짓된 그리스도인으로 분류되고 마는 것이다.

6. 기독교 혼합주의

빈야드 운동이 표방하고 있는 신조 및 신앙고백은 복음주의적 요소를 많이 가미하고 있다. 피터 와그너는 “나는 세대주의적 복음주의와 스코필드 성경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하면서 빈야드 운동을 ‘복음주의 안에서 새롭게 일어난 성령운동’이라고 믿고 있다.⁵⁶⁾ 하지만 이미 살펴본 대로 빈야드 운동의 신학은 웨이커 교도의 신령주의에 근거한 신비주의에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존 맥아더는 빈야드 운동을 기독교 혼합주의로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그는 “제 3의 물결은 혼합주의 운동이며 사실상 제 3의 물결은 교묘하게 복음주의라고 위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은사운동을 꺼리는 복음주의자들에게 자신들의 운동을 판매하기 위한 선전에 불과하다”⁵⁷⁾고 말한다. 워버는 결국 ‘역사적 정통 신학’에 자리잡고 있지 않으며 로마 카톨릭과도 손을 잡고 교황의 교시를 수용하고 있다.

존 맥아더는 “워버는 로버트 슐러의 ‘긍정적 사고방식’을 기독교 체험의 신기원이라고 한 와그너의 말에 따라 로버트 슐러의 사상을 가미하고 또 한국의 조용기 목사의 ‘사차원 사상’을 적극 수용한다. 그러나 이것은 불교와 신비주의에 근거한 것이다”⁵⁸⁾라고 비판하였다.

실제로 존 워버도 그의 책에서 교인들을 효과적으로 기도하고 훈련시키고 무장시킬 방법들을 찾으려고 노력했다고 하면서 오랄 로버츠의 오순절 모델, 성공회와 로마 천주교의 성례전적 모델, 치유를 강조하는 신오순절 모델, 마귀축출 모델, 심리적 내적 치유를 강조하는 심리적 영적 모델과 같은 여러 상이한 방법들을 연구하였고 그것을 빈야드 교회에 적용시켰다고 하였다.⁵⁹⁾

그러므로 빈야드 운동은 성경적인 특성있는 신학을 가지지 못한 채 여러 가지 신학 사상과 신비주의, 심리학 등의 방법을 혼합한 혼합주의의 성격을 띠고 있다.

7. 편향된 성경 해석

56) 피터 와그너, 「제 3의 바람」, 33-38.

57) 존 맥아더, 229-230.

58) *Ibid.*, 231.

59) 존 워버·케빈 스프링거, 「능력 치유」, 309-311.

빈야드 운동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지 않고 자기들의 교리나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이단이나 기독교로 가장한 여러 단체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즉 성경을 인용하고 사용하지만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지 않고 단지 자신들의 주장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다. 결국 빈야드 운동은 자신들은 성경에 근거하여 행동한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주장은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

김성봉 교수는 빈야드 운동의 성경관에 대하여 “세대주의나 워펠드와 그 입장을 같이한다고 하나 그 내용에 있어서는 각각 다르다”⁶⁰⁾고 주장한다.

웁버가 주장하는 신학은 형식적인 면에서는 개혁주의와 흡사한 성격을 가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내용을 살펴보면 전혀 개혁주의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실제로 빈야드 운동을 접할 때 대단히 복음주의적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본받아야 할 점이 많다는 인상을 받게 되는 것은 국제적 복음주의 신학자⁶¹⁾들의 참여 때문이라고 최갑중 교수는 주장하고 있다.⁶²⁾ 최갑중 교수는 실제로 빈야드 운동이 주장하는 공식적인 신조와 신앙 고백문, 선교 목적 등을 읽어보면 개신교 복음주의 교회들의 신앙 고백문이나 우리 개신교 교회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과 별다른 점을 발견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문서들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면 성경적이지 못한 여러 가지 면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였다.⁶³⁾

빈야드 운동은 성경에 대하여 계시적인 성격을 간과한 채 단순히 그 가운데 기록된 내용의 현재적 반복에 치중한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즉 예수님과 사도들이 행한 치유의 사역과 이적과 기사를 그대로 다시 재현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성경의 의미를 단순화 시킬 뿐 아니라 미신화시키는 것이다. 빈야드 운동은 성경을 통하여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진술의 차원을 넘어 자기들이 직접 경험할 것을 추구하고 있으며 성경의 내용을 인간 존재의 전영역과 관계하여 적용하기보다는 종교적이고 영적인 면에만 축소 적용하고 있는 듯하다.

이러한 입장은 종래의 재세례파나 광신자들처럼 성령의 직접적인 계시를 주장하

는 그들의 방식과 별다른 것이 없는 것이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성경을 떠나 직접계시로 비약하는 광신자들은 경건의 모든 원리를 파괴한다”⁶⁴⁾고 하였다.

그러면 그들이 주장하는 인용하는 성경적 근거를 몇 가지 살펴보기로 하자.

표적과 기사에 대한 성경적 근거로 그들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것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고”(마 10:1) 이 권능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실행하며(마 10:8)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마 28:19-20) 명령하였다. 이에 따라 베드로와 요한을 위시한 제자들은 이러한 권능을 행하였다. 이러한 사도들이 1 세대이며 제 2 세대인 스테반, 빌립, 아나니아 가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제시를 하였고 (이들은 사도들이 아니다) 제 3 세대인 바나바, 실라, 디모데 등이 권능으로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제시를 하였다.

쓰러지는 현상의 성경적 근거는 신구약 여러 곳에서 그 예를 찾을 수 있는데 ① 다니엘이 히테겔 강가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다니엘에게 임하였을 때 (단 10:1-10) ②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임하였을 때 (삼상 19:23-24) ③ 에스겔이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을 보고(겔 1:28-2:2, 3:23-24) ④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요 18:3-6) ⑤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자들이 천사를 보고 (마 28:1-4) ⑥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행 9:4) ⑦ 사도 요한이 밧모섬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았을 때 (계 1:17) 등이다.

웃음이 터지는 현상의 성경적 근거로는 시편 126편 1-2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입에 웃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고 하였고 욥기 8장 20-21절에서 웃음으로 내 입에 채우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인간의 의지적 웃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웃음을 주시는 것이다. 또한 누가복음 6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거두시고 웃음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빈야드 운동은 자신들의 집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이러한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이며 하나님의 임재라고 주장한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는 말씀과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하신 말씀에 근거하여 이러한 모든 역사들이 주님의 역사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연결은 지나친 비약이며 올바른 성경 해석이 될 수 없다. 과연 성

60) 김성봉, “조직신학적 입장에서의 본 빈야드 운동” 「빈야드 운동 무엇이 문제인가?」 (서울: 한국개혁주의신학연구소, 1996), 24.

61)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폴러 신학교의 선교학 교수인 Peter Wagner, 풀러 신학교 신약학 교수인 Russell P. Spittler, 트리니티 복음주의 신학대학원 조직 신학 교수인 Wayne Grudem, 달라스 신학교 조직신학 교수인 Jack Deere 등을 들 수 있다.

62) 최갑중, 「빈야드 운동, 그 성경적 조명」, 104-105.

63) *Ibid.*, 73-74.

64) 존 칼빈, 「칼빈 기독교 강요」 I. ix. 1. (서울: 로고스, 1987), 82.

경의 여러 현상들이 빈야드 운동에서 일어나는 현상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가? 위에서 제시한 성경의 대부분은 자신들의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한 하나의 악세사리적 인용에 불과한 것이다. 또한 빈야드 운동의 성경 해석은 전체적인 신학적 조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끼워맞추기식 성경 해석임을 쉽게 알 수 있다.

8. 인간중심의 예배 추구

앞에서 우리는 빈야드 교회가 주장하는 하나님의 영적 입재와 예배의 요소를 살펴 보았다. 그들의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고통 받는 인간 내면 속에 평화를 심고 고통받는 자들을 치유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한 단면을 평가하는 것에 불과하다. 오히려 예배에서 그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되는 듯한 요소가 너무 많이 보인다. 이런 면에서 서창원 목사는 빈야드 교회의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 중심 예배에서 회중의 심령에 어떤 감흥을 불러 일으키는 인본주의 경향이 농후해진 예배로 그 중심을 바꾸어 놓았다"⁶⁵⁾라고 비판하였다.

빈야드 교회의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나 또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격하여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찬양과 기도를 통한 은사체험에 있다고 보인다. 개혁주의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하나님은 계시된 자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최근에 빈야드 교회의 예배와 함께 소위 '열린 예배'⁶⁶⁾가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적수입되고 있다. 물론 처음 교회에 오는 사람이나 초신자에게 말씀보다는 다른 여러 문화적인 방법으로 복음을 제시하는 것은 새로운 도전이 된다. 특히 예배에 거부감을 느끼는 불신자들이나 청소년들에게 선호되고 있다. 이러한 의도는 예배 형식에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이나 복음의 진리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려는 것이다.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또 그들의 필요를 알

65) 서창원, "빈야드 운동에 대한 개혁교회의 견해" 「진리의 깃발」 15, 47-52.

66) '열린 예배'는 미국 시카고의 윌로우 크릭 교회(담임목사 Bill Hybels)와 로스앤젤레스의 새들백 벨리 교회(담임목사 Rick Warren) 등에서 '구도자 예배'(Seeker Service)란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는 사역을 우리나라에 들여오면서 '열린 예배'로 번역하였다. '열린 예배'가 국내의 몇몇 대형교회들에서 시작되면서 관심이 커졌지만 이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 또한 만만치 않다. '열린 예배'는 주로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하거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다가 점차 기성 교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형태로 바뀌어 가고 있다. '열린 예배'에서는 여러 가지 문화적 이벤트를 준비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열게 하고 그후에 설교를 하는데 설교도 길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간단하게 전하는 것이 특징이다.

고 채워주려는 시도에 대하여는 높이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예배에 대하여 올바른 입장을 가져야 한다. 결코 예배가 인간적인 필요만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이러한 열린 예배에 대하여 존 맥아더 목사는 한마디로 "문화적으로 동화된 교회는 필요치 않다"⁶⁷⁾라고 단언한다. 그는 교회는 교회의 특유성을 끝까지 고수해야 하며 교회가 교회답게 굳게 서 있을 때 교회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다고 하였다. 현대적으로 예배를 비꿀수 있지만 그러한 결과가 지나치면 결국 문화에 세속화되어 버리고 나중에는 세상과 똑같이 되어버려 교회다움이 없어지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⁶⁸⁾ 존 맥아더 목사의 주장은 지나친 면이 있다. 그러나 그의 경고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빈야드 교회의 예배가 지나치게 형식화되어 있고 필요를 요구하는 사람들의 욕구를 채워주지 못하는 면에 대한 반발로 시작되었기에 우리는 이러한 면을 잘 살펴 보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사람 중심이 되어서는 안된다. 성경적인 원리를 잘 깨달아 균형잡힌 예배의 모습을 갖추어야 한다.

9. 편협된 성령론

빈야드 운동의 성령론은 그들의 성경관과 연결이 된다. 그들의 성경관은 편협되어 있고 자의적 해석이 너무 많음을 살펴 보았다. 마찬가지로 빈야드 운동의 성령론도 많이 편협되어 있음을 보게 된다. 오순절 운동이나 은사 운동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적 기록에 의존해 있는 것처럼 빈야드 운동도 그러하다. 이것은 그들의 편협하고 획일적인 성경 이해, 즉 성경을 자신들이 주장하는 이론과 교리를 합리화시키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성경에서 그들의 모델을 이끌어 내려는 방법인 것이다.

성경은 시간적, 공간적,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안다. 우리는 이런 기초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해야 한다. 그러나 빈야드 운동의 문제는 이런 시간적, 공간적, 문화적 배경을 가진 성경을 무시간적, 무공간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성령론에서 그러한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그들의 집회에서 나타나는 모든 현상을 성령의 역사하심과 부여주심으로 보는 것, 존 워버의 책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들은 그들의 성령 이해가 얼마나 편협되어

67) 존 맥아더, "문화적으로 동화된 교회는 필요치 않다", 「낮은 울타리」 78 (1997. 3), 71-72.

68) *Ibid.*, 72.

있는지를 증명하는 것이다.

이한수 교수도 “제 3의 물결운동의 약점은 성령의 사역을 총괄적으로 균형있게 접근하지 못하고 성령의 카리스마적 사역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하는데서 오해와 역기능을 야기시킬 수도 있다”⁶⁹⁾고 지적하고 있다. 기존 신자들까지도 계속 기적만을 추구하는 신앙으로 빠지게 하고 성숙하고 영적인 삶을 살게하는 성령의 윤리적 사역을 평가절하하거나 소홀히 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장에서 살펴보도록 하자.

4. 빈야드 운동의 성령론과 신약성경의 성령론

이제 우리는 빈야드 운동이 내세우는 성령에 대한 이해와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에 대한 이해를 고찰하고자 한다.

빈야드 운동은 그들이 복음주의에 속하여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아직은 성령론에 대한 견해를 밝히지 않고 있다. 그래서 빈야드 운동의 성령 이해를 알기 위해서 존 워버의 책과 빈야드 운동에 관련된 사람들의 책을 통하여 그들의 성령 이해를 밝혀보고자 한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성령 이해는 성경과 함께 개혁신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A. 은사와 관련된 성경의 해석 문제

빈야드 운동은 은사에 대하여 매우 개방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 전통교회가 은사에 대하여 조금은 부정적인 것에 비하여 빈야드 운동은 매우 개방적인 면을 볼 수 있다. 물론 빈야드 운동의 뿌리가 오순절 운동과 은사 운동에 두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다.

빈야드 운동의 성령에 대한 이해는 은사적인 면에 치우쳐 있음을 볼 수 있다. 성령의 역사를 은사적인 면만 집중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특별히 그들은 신약 성경에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중심한 성령의 이해를 가지고 있다.

또한 그들이 은사라고 할 때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은 방언과 예언, 치유, 축사, 기사와 이적 등 특정한 은사와 연관시켜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빈야드 운동에서 방언을 오순절 운동이나 은사 운동에서처럼 신자라면 꼭 해야 된다고 말

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들의 행동을 통해 볼 때에 매우 중요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존 워버는 사도행전에는 교회 성장을 초래했던 표징들이 10여 가지 형태로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한다.⁷⁰⁾ “이들은 9회에 걸쳐 ‘표징과 기사’라는 표현을 통해 기술되고 있으며 치유, 축사, 죽은 자의 부활, 돌연한 장소 이동, 자연이나 음식을 통한 기적 등을 포함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것을 좀 더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그것은 예언과 방언, 환상, 죽은 자의 부활, 치유, 천사의 방문, 독사에 물렸으나 해를 입지 않음, 옥문이 열림 등의 사건이다.

신약 성경에서 성령의 은사와 관련되어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단어는 ‘카리스마(xarisma)’와 ‘프뉴마티코스(πνευματικός)’, 그리고 ‘도페아(δωρεα)’가 있다. 그러면 과연 성령의 은사와 관련된 것들이 오직 이러한 이적과 기사에만 사용이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자.

1. 카리스마(xarisma)

신약성경에는 ‘카리스마’란 단어가 모두 17회 나온다. 특별히 이것은 바울서신에서 거의 대부분인 16회가 사용이 되고 있다.(롬 1:11, 5:15,16, 6:23, 11:29, 12:6, 고전 1:7, 7:7, 12:4,9,28,30,31, 고후1:11, 딤후4:14, 딤후 1:6) 그리고 나머지 한 번은 베드로전서 4:10에서 사용이 되고 있다. 카리스마란 단어가 어떤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는지 살펴보자.

① 로마서

로마서에서 볼 때 1:11에 ‘신령한 은사’라고 하고 있다. 이것은 성령에 의한 무엇을 말하고 있으나 정확하게 무엇을 말하는지 알기는 어렵다. ‘무슨’이라고 할 때 이미 로마 성도들이 받아 누리는 것을 더욱 견고케 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6:23은 ‘은사는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인 영생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11:29에서 ‘은사’는 하나님께서 배부신 구원의 은혜이며 부르심의 은혜인 것이다.⁷¹⁾ 또한 12:6에서는 복수형태인 ‘카리스마타(xarismata)’가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예언,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을 가리킨다.

69) 이한수, “오늘날의 신유에 대한 신학적인 진단”, 『복회와 신학』 72(1995. 6), 97.

70) 존 워버, 『능력 전도』, 163.

71) 존 칼빈, 『로마서 성경주석』 (서울: 성서교재간행사, 1992), 374.

② 고린도서

고전 1:7에서 바울이 전한 십자가의 복음과 연관이 있으나 정확하게는 알 수 없다. 7:7절에서는 바울 자신의 독신 생활을 가리키고 있다. 그리고 고전 12:4-6에서는 '카리스마'가 복수로 사용되면서 '직업들(διακονιων)'과 '역사들(επειρηματων)'이란 복수와 함께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것은 바로 8절 이하에 나오는 '지혜의 말씀,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예언, 영들 분별함, 방언, 방언 통역, 사도, 선지자, 교사,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다. 어쩌면 이러한 것은 빈야드 운동에서 볼 때 그들의 주장을 대변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③ 디모데서

딤후 4:14과 딤후 1:6에 '은사'란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에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정확히는 무엇인지 알기 어렵다. 칼빈의 경우는 '은총, 재능, 능력' 등 일반적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⁷²⁾ 그리고 렌스키는 '은사'에 대하여 13절에 나타나 있는 것이 그 하나이며 또 이것을 위해 주어진 예언의 은사나 영들을 분별하는 것 등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⁷³⁾

④ 베드로전서

4:10에 베드로는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신 각기 다양한 선물이며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것은 11절 이하에 나타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카리스마'의 의미는 결코 '치유, 방언, 예언' 등 특별한 성령의 은사에 한정하여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빈야드 운동에서 주장할 수 있는 고린도전서 12:4-6에서도 '방언, 예언, 치유' 등이 나타나 있지만 결코 이것만을 말하고 있지 않다. 도리어 더 폭넓게 성령께서 몸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주시는 여러 직분자들, 성도의 봉사, 그리고 봉사의 일을 하도록 주신 능력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2. 프뉴마티코스(πνευματικός)

'프뉴마티코스'는 '카리스마'보다 더 자주 사용이 되고 있는데 모두 26회 사용되고 있다. 이들 중에서 바울서신에 주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총 24회가 사용되고 있

다.(롬1:11, 7:14, 15:27, 고전2:13,13,15, 3:1, 9:11, 10:3,4,4, 12:1,3,7, 14:1, 15:44,44,46,46, 갈6:1, 엡1:3, 5:19, 6:12, 골1:9, 3:16) 그리고 베드로전서에 두 번 사용되고 있다.(2:5,5)

'프뉴마티코스'는 세 가지 용법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형용사로서 사람이나(고전3:1) 사물을 수식하는(롬1:11, 고전2:13, 엡1:3, 골1:9, 벧전2:5) 서술적 용법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남성명사로 직접 사람(고전2:15, 갈6:1)을 지칭할 때 사용되기도 하였으며 중성 복수명사로 어떤 사물(롬15:27, 고전2:13)을 지칭하기도 하였다.⁷⁴⁾

① 로마서

로마서 1:11에서 '프뉴마티코스'는 '은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의 한정적 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은사'를 수식하고 있지만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지 알 수는 없다. 롬 7:14에서는 '육(σαρκινος)'과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그것은 율법의 신적인 성격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15:27에서는 이방인들이 유대인을 통하여 받게 된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② 고린도서

고린도전서에서 15번이나 사용이 되고 있다. 이것은 성령의 사람, 곧 성령을 받은 신자를 가리키고 있으며(2:15, 3:1, 12:3, 15:46) 또 성령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나 성령에 속한 일(2:13, 9:11, 10:3)등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③ 갈라디아서

6:1에서는 '너희'라는 말을 가리킨다. 즉 이것은 성령을 받은 '갈라디아 교회 신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④ 에베소서

1:3에서는 '복'을 수식하는 형용사의 한정적 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가르키는데 이것을 칼빈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축복이며 영생인 것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⁷⁵⁾이라고 하였다. 5:19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란 의미로 사용되었고 6:12에서는 '악한 영들'을 가리키고 있다.

⑤ 골로새서

1:9에서는 '지혜와 총명'을 수식하는 형용사의 한정적 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72) 존 칼빈, 「디모데후서 성경주석」, 485-486.

73) Lenski, 「디모데서 성경주석」 (서울: 백학출판사, 1979), 160.

74) 최갑중, 「빈야드 운동, 그 성경적 조명」, 113.

75) 존 칼빈, 「에베소서 성경주석」, 260.

이것은 영적인 것이며 성령의 인도 없이는 다른 방도를 통해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한 것이다.⁷⁶⁾ 3:16은 엡5:19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⑥ 베드로전서

2:5에서 두 번이 사용되고 있는데 전자는 단수와 남성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집'을 수식하고 있고 후자는 복수와 여성으로 사용되며 '제사'를 수식하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으로 물질적인 것과 대조를 이루고 있으며 영적인 것임을 의미하고 있다.⁷⁷⁾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프뉴마티코스'의 의미는 사람이나 사물, 혹은 하늘에 속한 존재의 속성을 표현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으며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특별한 선물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고 성령의 임재나 활동의 증거와 결과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고 있고 또 성령을 통해 거듭난 신자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

3. 도레아(δωρεα)

신약성경에 '도레아'는 총 11번 사용되고 있는데 바울서신에 5번(롬5:15,17, 고후 9:15, 엡3:7, 4:7) 사용되고 있고 요한복음에 1번(6:4), 사도행전에 4번(2:38, 8:20, 10:45, 11:17), 그리고 히브리서에 1번(6:4) 사용되고 있다.

① 로마서

5:15,17에서는 '도레아'는 '선물'로 번역이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거저 주시는 그리스도의 구속과 생명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칼빈은 선물을 "우리에게 입한 긍휼의 열매이며 생명과 구원을 얻은 화목이요 또한 의요 새 생명이요, 모든 이와 유사한 복"⁷⁸⁾이라고 하였다.

② 고린도후서

9:15에서 '도레아'는 '은사'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원의 선물을 가리키는 것이며 모든 교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이다.⁷⁹⁾

76) 존 칼빈, 「골로새서 성경주석」, 541-542.
77) Lenski, 「베드로전후서 성경주석」, 75-77.
78) 존 칼빈, 「로마서 성경주석」, 175.
79) Lenski, 「고린도후서 성경주석」, 323.

③ 에베소서

3:7에서는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복음 전파의 직분을 말하고 있으며 4:7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 혹은 성령의 사역을 가리키고 있다.

④ 사도행전

2:38, 8:20 등에서 세례요한과 예수님에 의해 약속된 새 시대의 선물인 성령 자체를 가리키고 있다.

⑤ 요한복음

6:4에서는 그리스도 자신을 말하고 있으나 또한 이것은 예수님께서 주실 성령을 말하고 있다.

⑥ 히브리서

6:4에서는 성령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볼 때에 성령이나 성령의 은혜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카리스마', '프뉴마티코스', '도레아' 등은 결코 특수한 사람이나 혹은 방언, 예언, 치유, 능력 행함 등과 같은 어떤 특수한 은사에 제한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도리어 이러한 것들은 광범위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선물, 성령의 역사, 성령님 자신, 성령의 사역, 성령 받은 성도, 특수한 사명을 받은 사도들과 사명자들, 교회의 구성원에 이르기까지 넓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그러므로 빈야드 운동에서 이러한 단어들만 단지 그들이 말하는 '예언, 방언, 치유, 능력행함' 등의 의미로 사용하는 것은 너무나 편협된 것이다. 이것은 성령의 사역을 제한하는 것이며 또한 성경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 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B. 성령의 은사적인 면과 윤리적인 면

빈야드 운동의 경우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성령의 은사적인 면을 강조하기 위하여 성경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결국 그들은 이런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성령의 역사중 은사적인 면을 부각시키고 치중하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결코 성령의 역사가 은사적인 면만을 가지고 있

는 것이 아니다. 분명히 신약성경을 통해서 볼 때 성령님의 역사는 기사와 이적과 같은 면이 있다. 그러나 동시에 성도의 생활과 삶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것이다.

빈야드 운동의 모토는 '능력'이다. 이것을 성령의 역사와 바로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다. '능력 전도', '능력 치유', '능력 대결'이란 문구들이 이것을 잘 보여 준다. 성경은 성령의 능력의 부분을 간과하지 않는다. 이것을 많이 강조하고 있다. 예수님도 친히 제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입으라고 하셨다.(행1:8) 성령의 역사로 이적과 기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막16:17-18) 또한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곳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얼마든지 볼 수 있다.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다.(행2:43) 그리고 사도들은 '표적과 기사를 거룩한 중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였다.(행4:30)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므로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더 많아지게' 되었다.(행5:12-14) 우리는 이것을 무시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만이 "모두"라고 생각하는 것에 잘못이 있는 것이다. 성령의 역사가 "이것 뿐이다"라고 말하고 주장하는 것이 잘못이다. 결코 성령의 역사는 이것만이 아니라 바로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열매를 맺게 하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윤리적인 삶과 연결이 되는 것이다. 성령의 역사는 단지 능력을 행하게 하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윤리적인 삶에까지 미치는 것이다.

이러한 면을 우리는 바울 서신을 통해서 볼 수 있다.⁸⁰⁾ 누가 그의 서신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하여 성령의 능력과 기사를 강조하고 있다고 한다면 바울은 그의 서신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를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과 많이 연결시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것은 바로 성경의 균형잡힌 성령에 대한 이해이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롬8:9)라고 말한 것에서부터 성령의 역사 없이는 아무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불가능함을 지적하고

80) 여기서 먼저 밝혀 두는 것은 현대 신학자들처럼 성경을 구분하여 바울신학, 누가신학을 주장하는 자들의 입장을 따르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취하는 것은 바울서신과 누가의 서신에서 서로 강조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이다. 그러나 결코 누가가 성령의 은사와 능력만을 강조하고 있고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윤리적인 면만을 강조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것은 성경의 한 저자이신 성령의 역사를 배척하는 잘못된 것이다. 우리는 한 성령님을 믿으며 그분의 역사로 인간 저자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한 뜻을 전하기 위하여 성경을 기록하셨다고 믿는다.

있는 것이다. 보다 적극적으로 말하자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령 안에 있는 자들이며 성령 또한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 가운데 내주하고 계신다는 것이다.⁸¹⁾

성령받은 결정적인 증거는 무엇인가? 오순절 운동이나 은사 운동에서처럼 과연 방언을 말해야만 성령을 받은 것인가? 아니면 빈야드 운동에서 말하는 대로 능력을 행하거나 이상한 일을 경험해야만 하는가? 바울은 로마서 8:15와 갈라디아서 4:6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일찍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호칭으로 사용하시고 또한 제자들로 하여금 사용하게 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고린도전서 12:3에 나타난 대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사역임을 강조하고 있다.⁸²⁾

바울은 성령을 '새 시대를 여는 종말론적인 선물'로 보았으며 '성령을 그리스도인의 종말론적인 삶의 원천'으로 보았다.⁸³⁾ 그리스도의 부활은 참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를 연결시키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분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종말성에 참여시키신다.⁸⁴⁾ 이 종말은 단지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이것이다. 우리가 이미 성령을 받았으며 성령 안에서 사는 자들이기에 마땅히 육신에 속한 옛시대의 삶을 벗어 버리고 새시대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강한 윤리적 책임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갈5:16-23, 엡5-6장)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통하여 옛세계의 영역인 사탄과 율법과 이 세상의 원리와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엡2:2 고전2:12)과 이 세상의 신(고전2:12)과 대결하게 된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이 종말론적인 삶을 '육에 따르는 삶'과 대조하여 '성령을 따르는 삶'(롬8:4-6),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삶'(롬6:9-10) 등으로 말하고 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 안에 거주하고 있는 성령은 이미 활동을 시작하여 그리스도인이 육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생활에로 인도한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계속 성령을 좇아 행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것

81) 최갑중, 「예수·교회·성령」(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2), 117.

82) *Ibid.*, 118-119.

83) *Ibid.*, 123-132.

84) 유해무, 「개혁교의학」(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7), 584-585.

과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⁸⁵⁾

오늘날 성령충만에 대하여도 많은 경우에 복음 전파의 능력과 동일시한다. 오순절 성령강림으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한 것을 근거로 삼고 있다. 빈야드 운동도 마찬가지로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한 부분만을 가지고 전체인 것으로 보는 것은 잘못되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이 복음 증거를 '능력 대결, 능력 전도'란 모토로 국한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성령충만을 가리키고 있는 갈라디아서 5:22-23에서나 에베소서 5:18-25에서 볼 때 성령의 충만을 받은 신자의 인격적 특성과 생활의 특성이 어떠해야 함을 우리에게 잘 보여 주고 있다.⁸⁶⁾

이러한 면은 빈야드 운동의 신앙고백에서도 잘 나타난다. "… 우리가 우리 시대의 사역을 위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거나 능력을 받게 되거나 종종 의식할 수 있는 체험을 하게 된다는 것과 성령께서 지금도 사역하신다는 것과 지금도 모든 성경적 은사들을 활용하신다는 것과 우리가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의 능력을 받거나 치유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혹은 교회를 섬기고 인도할 수 있도록 임직받는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들에게 안수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다"⁸⁷⁾ 이처럼 이들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오직 성령의 능력과 관련한 것이며 삶은 어떠한 강조가 없음을 보게 된다.

C. 성령의 인격성

오순절 운동이나 은사 운동에서 성령을 인격적인 분으로 이해하기 보다는 '능력, 힘, 권능' 등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빈야드 운동의 경우는 그들의 신앙고백에서 성령의 인격성에 대하여 잘 밝혀 놓고 있다.

"… 본체에 있어서는 하나이시나 동등한 권세와 영광을 가지신 세 인격, 곧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계시는, 한 분 하나님을 믿는다"⁸⁸⁾

오순절 운동이나 은사 운동에서 성령 하나님을 하나의 독자적인 인격으로 보지 않고 단순히 하나님의 능력이나 감화력으로 보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성경은 분명하게 성령이 인격체로서의 제반 특성들을 갖추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요한복음

14: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고 하였다. 또한 에베소서 4:30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하였고 고린도전서 12:11에 "이 모든 일을 같은 한 성령이 행하시라 그 뜻대로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니라"고 하였다. 바로 이것은 성령님이 한 분 인격체로서 감성과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이다.⁸⁹⁾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와 인격적인 교제를 가지시고 내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계시기에 성부의 깊은 것도 통달하신다.(고전2:10-11)

성령님의 인격성에 대하여 핑크는 말하기를 "그분은 인격적인 행위가 수반되며 또한 인격적인 신분이 주어지며 인격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다"⁹⁰⁾고 하였다. 성경에서 자주 성령님에 대하여 물질적인 예를 들어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비둘기(마 3:16), 바람(요3:8), 생수의 강(요7:37-39)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것은 성령의 특징적인 면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것으로 성령님을 물질적인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이다.

빈야드 운동은 인격체되신 성령님을 그들의 신앙고백에 넣어 놓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볼 때 그들이 내세우는 신앙고백과 다른 면을 볼 수 있다. 그들은 그들의 신앙고백과는 달리 성령님을 한 분의 인격체로 보기보다는 능력으로 보려는 경향을 찾아 볼 수 있다. 이것은 은사에 대한 이해에서 좀 더 살펴볼 수 있다.

D. 은사에 대한 이해

빈야드 운동은 은사에 대하여 매우 강조하고 있다. 성령의 능력을 받고 은사를 받는 것을 매우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특별히 그들은 이 은사-치유, 예언, 방언, 능력행함 등 특별한 은사에 제한하여 사용하고 있다.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로 이해하기보다는 인간이 그 은사들을 받기 위하여 노력하고 훈련해야 함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은사에 대한 잘못된 이해이며 성령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기인한 것이다.

빈야드 운동에서는 은사를 받기 위하여 여러 프로그램을 통하여 훈련을 받고 은사를 체험하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들은 세미나를 통하여 '은사받기

85) 최갑중, 「예수·교회·성령」, 132.

86) 황영철, 「성령과 윤리」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4), 240-251.

87) 최갑중, 「빈야드 운동, 그 성경적 조명」, 54.

88) 최갑중, 「빈야드 운동, 그 성경적 조명」, 47.

89) 김성린, 「기독교 교리 개설」 (서울: 개혁주의신학협회, 1988), 57.

90) A. W. Pink, 「성령론」, 지상우 역(서울: 도서출판 엠마오, 1986), 11-16.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우리가 앞에서 살펴 보았지만 빈야드 운동에서는 은사를 받기 위한 훈련을 계속하고 있다.

빈야드 운동에서 모든 신자는 예언을 할 수 있고 또 예언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고 한다. 심지어 그들은 "우리의 교육 팀이 사람들에게 예언을 이해하고 예언을 하는 법을 가르치는 데는 네 시간 내지 두 시간이면 된다"⁹¹⁾라고 하였다. 과연 이것이 가능한가? 과연 그들은 성령님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던 말인가?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들은 예수님과 사도들이 행한 기사와 이적을 그대로 모방하려는 것에 있다. 그들은 오늘날의 사역자들도 성령을 받아 예수님과 사도들과 동일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고 믿고 또한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 그래서 빈야드 운동에서는 그들의 집회에서 일어나는 기괴한 현상들-울거나 소리치는 행위, 몸을 떨거나 비트는 행동, 땅바닥에 뒹구는 행위, 울부짖음 등-을 성령님이 임한 표지로 사용한다는 것이다.⁹²⁾

그렇다면 빈야드 운동이 어떻게 오늘 우리 시대에도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재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시에 성령을 충만히 받아 그의 하나님 나라의 선포와 메시아적 사역을 감당하였고 예수의 제자들도 오순절에 성령을 충만히 받아 예수의 하나님 나라 사역을 계속하여 초대 교회를 급속히 성장시켰던 것처럼 오늘의 시대에도 성령의 충만을 받아 그들처럼 동일한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⁹³⁾

빈야드 운동은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일이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고 말한다. 왜그녀 교수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그의 책에서 말하고 있다.⁹⁴⁾ 첫째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예수는 성령으로 충만해 있었다. 둘째 성령이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에 의해 능력을 부여 받으셨다. 셋째 성령이 '나를 보내시'- 예수는 성령에 의해 명령을 받았다. 같은 성령에 의해 우리도 충만해질 수 있고 능력을 받으며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도록 명령을 받을 수 있다. 왜그녀 교수는 또 다시 말하기를 "우리가 자신들의 사역에 있어서 어떻게 큰 능력을 기대할 수 있는지의 단서를 제공해 준다. 우리는 금식하고 강력하게 더욱 기도를 오래 함으로써 우리들 각자의 기도 생활을 개발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91) 박영호, 「빈야드 운동 평가-토론토 축복 해부」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6), 200-201.

92) 존 워버·케빈 스프링거, 「능력 치유」, 301.

93) 최갑중, 「빈야드 운동, 그 성경적 조명」, 77-78.

94) 피터 왜그너, 「제 3의 바람」, 133-135.

결국 이러한 논리는 성경을 모범적으로 보고 성경에 기록된 것들을 오늘에도 재현하려는 모델로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면에서 간과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인격의 독특성과 신분이다. 즉 구속사적인 의미를 간과한 채 오직 모범적으로 보고 그대로 재현하려는 것은 큰 잘못이다. 빈야드 운동은 성경 자체가 강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독특한 인격과 신분, 그리고 사역에 두기보다는 오히려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한 표적과 이적 그 자체에 관심을 두게 한다.

E. 성령의 현상들에 대한 이해

빈야드 운동이나 토론토 축복에서 나타나는 많은 현상들이 있다. 거룩한 웃음이라고 불리는 큰소리로 깔깔대며 웃는 사람, 몸의 진동과 떨림, 꼬꾸라지는 현상, 술취한 듯한 행동, 짐승의 소리를 내는 사람, 마룻바닥에 엎드려져 있는 사람, 뒤로 벌렁 누워 있는 사람 등 전통교회로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빈야드 운동은 이러한 현상들을 바로 성령님이 개인에게 임해서서 그들을 주장하심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주장한다.⁹⁵⁾ 이러한 모든 현상에 대하여 존 워버는 그의 책에서 성경적인 근거를 들어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음도 볼 수 있다.⁹⁶⁾

그러나 과연 이러한 현상들이 성경적이며 성령의 현상인가? 이미 우리는 존 워버가 성경적 근거를 들고 있는 구절들은 그들이 자기들의 논리를 증명하기 위해 성경을 억지로 해석한 것이라는 것을 살펴 보았다. 이러한 현상은 다른 종교에서도 볼 수 있는 현상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보고서도 있다.⁹⁷⁾

그리고 이러한 현상들이 빈야드 사역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모든 것이 없었던 것처럼 그전 상태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능력도 사라지고 웃음도 사라지고 떠는 것도 사라졌다. 모두가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다.⁹⁸⁾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없다. 단지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자신을 모습을 바라보면서 통회하게 되고 (시6:5) 성령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주시는 모든 은사들도 정상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다.(롬 12:6-8, 고전12:4-11)

95) 존 워버·케빈 스프링거, 「능력 치유」, 355.

96) *Ibid.*, 355-367.

97) Stanly Jeb, 「토론토 축복 조사 보고서」, 진의우 역(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6), 36-42.

98) 정동수 편역, 「빈야드 운동의 실제」 (서울: 생명의 샘, 1996), 170.

F. 말씀과 성령 사역의 이분화

존 워버는 치유사역을 포함한 능력 전도가 성공적임을 설명하면서 능력 전도의 프로그램 전도를 비교하면서 말씀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마치 다른 것인 양 이분화시키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그는 “프로그램 전도는 은사의 도움없이 메시지를 중심으로하여 사람들의 이성에, 때로는 감정에 호소하는 전도 방법으로서 보통 미리 준비된 메시지를 청중들에게 전달하는 일방적인 의사 전달 과정이다. 이는 또한 복음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파하기 위한 조직과 기법을 강조하며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게끔 결단을 내리게 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은 복음은 그 선포과정에서 고유의 능력을 드러낸다는 매우 타당하게 보이는 과정이다”⁹⁹⁾라고 하였다.

그는 프로그램 전도의 과정은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을 위해 필요한 몇 단계의 절차를 사람들에게 알기 쉽게 제시하는 정도이며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제기하는 질문에 대하여 신학적인 해답을 제시하는 일에 강조점을 두고 있을 뿐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프로그램 전도의 목표인 결심이 달성되었다고 하여도 회심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는 기회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성숙한 신앙의 단계로 끌어 올리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존 워버에 의하며 프로그램 전도는 ‘말씀대로 나아가노니 성령께서 축복하고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말하는데 그치지만 능력 전도에서는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나아가시다’라고 말한다고 하면서 이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다.¹⁰⁰⁾

또 프로그램 전도에서는 ‘우리가 행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자세로 전도하지만 능력 전도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한다’¹⁰¹⁾고 말함으로 마치 준비된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은 잘못된 것처럼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결코 성경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성경은 그 어디에서도 말씀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를 이분화시키지 않는다. 도리어 말씀과 함께 성령이 역사함을 우리에게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칼빈은 말씀과 성령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하였다. 칼빈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증거에 의하여 확증이 되지 않는 한 그것의 확실성을 우리가 명확하게 가질 수 없는 것”¹⁰²⁾ 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과

그의 성령의 확실성을 서로 밀접하게 상호연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생각해 하는 성령이 빛을 낼 때에만 비로서 완벽한 말씀의 종교가 우리의 마음 속에 거주하게 되는 것”¹⁰³⁾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것으로 볼 때 빈야드 운동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과 성령의 사역을 이분화시키는 것을 잘못되었다. 또한 프로그램 전도가 인본적이고 자의적으로 매도하는 것은 어떤 성경적 지지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오히려 성령님은 이러한 사역을 통해서도 주의 백성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III. 결 론

빈야드 운동에 대하여 한국교회는 신학적인 비판이나 연구없이 무조건적인 수용이나 배타성을 가졌다. 이에 대한 결과로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그 중에 신학적인 문제 외에 교회의 분열이 가장 두드러지는 현상이다. 전통적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신자들과 빈야드 운동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함으로 충돌이 있게 되고 이에 따라 교회가 분열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다.

빈야드 운동의 문제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님에 대한 편협되고 잘못된 이해이다.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령님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한 단면-은사와 능력적인 면-에 치중하고 이것을 전부인 것처럼 주장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성경에 대하여 무작위로 추출하여 자신들의 이론과 논리를 주장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 빈야드 운동에서 근거로 주장하는 많은 성경의 구절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한 본문으로 해석하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결코 성경을 인간의 주장을 맞추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도리어 인간의 생각과 주장을 통제하는 것이며 모든 이론은 성경의 테두리 안에서 올바르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존 워버의 은사와 능력을 중심한 목회학이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았고 이에 따라 많은 목회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신학적인 검증이나 연구없이 그대로 수용함으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결국 교회 성장지향에 목표를 가지고 있기

99) 존 워버, 「능력 전도」, 82-83.

100) *Ibid.*, 82.

101) *Ibid.*, 83.

102) 존 칼빈, 「기독교 강요」 I. ix. 3. (서울: 로고스, 1987), 85.

103) *Ibid.*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로 올바르게 무장되기보다는 오직 교회의 성장에 관심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옳고 그름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잃어버린 결과인 것이다. 인간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잣대를 좌로나 우로나 움직여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국내에서는 침체한 한국교회의 활로를 얻기 위해 빈야드 운동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한국교회의 수많은 목회자들은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해결해 줄 수 없음과 자신의 목회에 대해 변화하지 않는 성도들을 바라보면 눈물을 흘려왔음이 사실이다. 이러한 갈급함에 시원한 소나기처럼 올고 있던 목회자들을 적시어 준 것이 바로 '빈야드 운동'이라고 빈야드 세미나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증거한다.¹⁰⁴⁾

그러나 이것 또한 참석한 대부분의 사람들의 주장은 아니다. 이에 반해 많은 사람들은 빈야드 운동에서 일어나는 이상한 현상들이 결코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사람의 조작에 의한 것이었다고 진술하였다. 혹자들은 빈야드 운동에 대하여 정신착란자들이라고 일축해 버리기도 한다.¹⁰⁵⁾ 또한 이러한 일로 말미암아 교회가 분열되는 현상까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에 대하여 올바른 분별력으로 판단해야 한다. 빈야드 운동은 많은 잘못된 신학적인 기초와 성경해석의 잘못된 부분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빈야드 운동이 출발하게 된 출발점과 또한 그들이 가진 선한 동기를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일축해 버리는 우를 범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진 올바른 동기와 영적인 문제에 대한 갈급함과 열심을 우리는 본 받아야 한다. 또한 동시에 우리는 그들의 성경에 기초하기보다는 인간적인 열심에 기초해 있음을 알아야 하고 성령의 역사에 대하여 성경적인 기초를 가지지 못한 점은 바로 알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목회적인 유행을 따라가려고 해서는 안될 것이다. 오히려 성경적인 기초를 가진 신학과 목회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교회성장 지향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균형있는 목회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고 올바른 분별력을 가짐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바르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104) 박경복, "한국교회에 물결치고 있는 빈야드 운동", 「현대 종교」 254(1995. 8), 57-59.

105) 권오순, "빈야드와 토론토 블레싱 정신착란자들의 정체", 「교회와 이단」 19 (1996. 3), 31-46.

참고 문헌

1. 단행본

- 김성린, 「기독교 교리 개설」 (서울: 개혁주의신행협회, 1988).
 김성봉·오덕교·이광희 공저, 「빈야드 운동 무엇이 문제인가?」 (서울: 한국개혁주의 신학연구소, 1996).
 박영호, 「빈야드 운동 평가 토론토 축복 해부」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6).
 오성환, 「빈야드 운동의 개관적 고찰」 (서울: 총회 유사종교 연구위원회 연구보고서, 1996).
 유해무, 「개혁교의학」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7).
 이순태, 「현대 성령론 평가」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3).
 이현수·막스터너, 「그리스도인과 성령」 (서울: 총신대학출판부, 1991).
 서철원, 「성령신학」 (서울: 총신대학출판부, 1995).
 정동수 편역, 「빈야드 운동의 실체」 (서울: 생명의 샘, 1996).
 최갑중, 「빈야드 운동, 그 성경적 조명」 (서울: 개혁주의신행협회, 1996).
 최갑중, 「예수·교회·성령」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2).
 최갑중, 「성령과 율법」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4).
 황영철, 「성령과 윤리」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4).

2. 역서

- Calvin, John, 「기독교 강요」 (서울: 로고스, 1987).
 Chebereau, Guy, 「불을 잡아라」, 김승환·신충현 공역(서울: 도서출판 새이름, 1996).
 Jeb, Stanly, 「토론토 축복 조사 보고서」, 전의우 역(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6).
 MacArthur, John F., 「은사: 예언자인가, 광신자인가, 아니면 이단인가?」 생명의 샘 편집위 역(서울: 생명의 샘, 1994).
 Pink, A. W., 「성령론」, 지상우 역(서울: 도서출판 엠마오, 1986).
 Wagner, C. Peter, 「제 3의 바람」, 정운교 역(서울: (주)임마누엘, 1991).
 Warfield, Benjamin, 「기독교 기적론」, 이길상 역(서울: 나침반사, 1989).

- White, John, 「능력 표적」 (서울: 도서출판 나단, 1991)
 Wimber, John, 「능력 전도」, 이재범 역(서울: 도서출판 나단, 1993)
 Wimber, John · Spring C., 「능력 치유」, 이재범 역(서울: 도서출판 나단, 1995).

3. 논문

- 김대관, 「존 워버의 '능력 전도'에 나타난 치유 사역 비판에 대한 고찰」 (고려신학대학원, 1996).
 조평식, 「은사 운동에 대한 연구 - 방언과 빈야드 운동을 중심으로」 (고려신학대학원, 1996).

4. 소논문(아티클)

- 권오순, "빈야드와 토론토 브레싱 정신착란자들의 정체", 「교회와 이단」 19 (1996, 3), 31-64.
 김승환, "'토론토 블레싱'으로 퍼지는 영적메아리, 토론토 에어포트 빈야드 교회", 「목회와 신학」 (1995, 6), 117-120.
 김영한, "성령의 역사인가? 사단의 미혹인가?", 「목회와 신학」 72(1995, 6), 75-87.
 김현석, "현장에서 본 빈야드 운동", 「목회와 신학」 72(1995, 6), 106-112.
 박경복, "한국교회에 물결치고 있는 빈야드운동", 「현대종교」 254(1995, 8), 56-67.
 서창원, "빈야드 운동에 대한 개혁교회의 견해", 「진리의 깃발」 15.
 예영수, "이 시대의 영적 현상, '토론토 축복' 어떻게 볼 것인가?", 「목회와 신학」 72(1995, 6), 65-74.
 이재범, "새 물결의 파고 '빈야드 운동' 어떤 것인가?", 「목회와 신학」 72(1995, 6), 53-64.
 이한수, "오늘날의 신유에 대한 신학적인 진단", 「목회와 신학」 72(1995, 6), 88-97.
 정병관, "일명 웃음예배라고도 불리는 빈야드 크리스찬 웰로우쉽 교회", 「현대종교」 253(1995, 7), 37-49.

- 현요한, "오늘의 은사운동, 이 점을 주의하자", 「목회와 신학」 72(1995, 6), 98-105.
 MacArthur, John F., "문화적으로 동화된 교회는 필요치 않다", 「낮은 울타리」 78 (1997, 3), 71-72.

5. 성경주석

- Calvin, John, 「에스겔 성경주석」 (서울: 성서교재간행사, 1992)
 Calvin, John, 「로마서 성경주석」 (서울: 성서교재간행사, 1992)
 Calvin, John, 「고린도후서 성경주석」 (서울: 성서교재간행사, 1992)
 Calvin, John, 「에베소서 성경주석」 (서울: 성서교재간행사, 1992)
 Calvin, John, 「골로새서 성경주석」 (서울: 성서교재간행사, 1992)
 Lenski, R. C. H., 「고린도후서 성경주석」 (서울: 백합출판사, 1979)
 Lenski, R. C. H., 「디모데전후서 성경주석」 (서울: 백합출판사, 1979)
 Lenski, R. C. H., 「베드로전후서 성경주석」 (서울: 백합출판사, 1979)